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눅 14:7-11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나귀와 수탉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서운 사자 한 마리가 닭을 뛰어 넘어 들어왔습니다. 사자를 본 나귀는 눈앞이 캄캄하여 움짱달짝 못하고 있었고, 수탉은 놀란 나머지 “꼬끼오” 소리를 지르면서 지붕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들은 사자는 그만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서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나귀는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가 겨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혈레벌떡 도망치는 모습이 너무나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사자를 쫓아가서 혼내줄 모양으로 사자를 향해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참을 쫓기던 사자가 이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서는 쫓아오는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사자가 닭 우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친 것은 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닭 우는 소리에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몰려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교만한 나귀는 자기는 항상 듣는 닭 우는 소리인데 그 소리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자를 깔보았던 것이지요. 그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우리도 어찌면 나귀처럼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착오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오만이나 교만 때문에 자신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자기의 가치가 높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처럼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는 상황에 따라 자기의 자랑거리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잘난 체 하기도 하며, 남들에게 자기의 장점을 뽐내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때때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우리는 ‘교만’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교만의 성품을 이기기 위해 갖가지의 방법들로 자기를 다스립니다. 명상을 합니다.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교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겸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듯이/없는 듯이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이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에서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이 겸손은 없어지고 교만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겸손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자기 자랑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 PR(Public Relations)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이 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겸손이 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전 10:30 에 보면“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라는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감사하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한데 누가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옹지 못한 교만이 우리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늘 밝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주위에 사람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친구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고 부담감을 갖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늘 불만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겸손은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에 대한 불평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에 대해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지나친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교만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못 마땅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십이 넘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오십이 넘었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늘 해왔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든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고 있으면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에 사람들이 저럴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뉘우칠 생각은 안하고 불만만 많습니다. 이것도 교만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경륜, 내게 주신 이 환경, 내 처지, 내 지위에 대하여 원망이 많습니까? 그것 역시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한데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라는 감사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겸손 지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빙한 데는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든가, 존경해서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자하는 교만에서 예수님을 초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못사람들에게 우리름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해 보려는 교만한 속셈이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잔치는 시작되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받은 사람들 역시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전부가 윗자리를 찾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자리 문제가 아주 민감합니다. 좀 더 위에, 좀 더 높은 데에 앉고자 합니다. 어찌다 윗자리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주인이 오더니 “당신 보다 높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좀 내려앉으시오”해서 망신을 당하기도하고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윗자리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이런 추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옮겨 줄 때 그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처음부터 스스로의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신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게 봐주어야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훨씬 더 보기가 좋고 그런 사람일수록 높여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두 가지 외모적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키가 굉장히 크고 다리가 너무 길어서 의자를 맞추어야 할 정도였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얼굴이 하도 못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못 생겨서 어느 날 어떤 초등학생이 “수염을 길러 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생긴 얼굴을 가리기 위해 턱수염을 길러서 그래도 그 만큼도 보기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시간에 야당 국회의원이 링컨을 정면에다 대고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요, 두 얼굴을 가진 남자입니다.”라며 비방을 했습니다. 이때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두 얼굴이 있다면 하필이면 왜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잘 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여유 만만하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를 내며 바로 시시비비를 가려 그렇게 말한 국회의원을 반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넘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낮추라는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남이 낮추어서 낮아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남에 의해서 억지로 낮춰지는 것은 ‘망신’입니다. 하지만 내가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을 명심하시며 한 주간을 힘차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